

# “중국 대통령 보는 것 같아” 文 탄핵청원 60만명 육박

코로나19 대응 방식 허술 ‘비판’  
마스크값 폭등에 여론 부글부글  
“中 모든 지역서 입국금지 했어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 명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이 ‘탄핵 청원’으로 화답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4일 처음 등장한 이후 26일 오후 2시 기준 56만849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는 넘긴 만큼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 19 대응 방식을 두고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문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또 정부가 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우한 지역 봉쇄 직전에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 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닐까. 정말 자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지하고 묵인한다는 이유로 ‘탄핵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삼권 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쉽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 결과에 비춰볼 때 이번 청원도 지난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청원이 마감된 뒤 논의해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文-여야 대표 내일 ‘코로나 회동’

111일 만에 회담... 국회서 진행  
사태 수습 위한 협력방안 논의  
국회 추경처리 협조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대응 논의를 위해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댄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여야 대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10일 회동 이후 111일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만난 적이 있다.

회동은 문 대통령이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정화·유성엽·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만나러 국회로 가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보통 청와대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 기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 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협조를 부탁하는 만큼 대통령이 국회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안 설명 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19 사태 수습 차원에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 코로나 19 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

회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5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중국인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외국인만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새학기부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첫 발’

192학점 도달시 조기졸업 가능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1학기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20 서울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3월1일 마이스터고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학교로 서울에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미래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4곳이 운영 중이다. 이외 19개 직업계고 학

점제 연구·선도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마이스터고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낮아져, 학교 밖 학습경험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목간 융합이수 기회가 확대되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2년 특성화고를 포함해 직업계고에 추가 도입되고, 2025년엔 일반고를 포함한 모든 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한국외대 ‘코로나19 대응’ 센터 설치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인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 대응한다.

26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지난 24일부터 인천공항 T1, T2, 김포공항에 한국외대 전용 귀고지원 접수대(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 3~4회 외국인 학생들을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에 송수하고 있다.

중국 방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 분리 공간에서 2주간 격리토록하고, 해당 공간에 대응전담팀을 상주시키고, 도시락과 간식, 개인 샤워실 등을 제공한다. 또 기숙사 1층에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생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숙사 운영팀은 환자 발생 등 긴급 사태에 대비 중이다. /한용수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에서 창업도약센터(후속지원 전담)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대학교

## 인천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 선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에서 창업도약센터(후속지원 전담)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역 창업지원센터 4개소, 창업도약센터(후속지원 전담) 2개소, 스포츠 사회적기업 전담 1개소로 총 7개 기관을 선정했다. 더불어,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운영 기관에도 선정했다.

인천대학교는 스포츠산업 창업도약

센터로 선정돼 5억2000만원씩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선정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의 도움도 컸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준비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자체 매칭 자금도 투입됐다. 3월 초부터 스포츠 관련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창업기업 12팀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된 창업보육팀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협약을 맺고 사업화 지원금은 최대 4500만원과 인천대학교의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한용수 기자

##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진로, 취·창업 지원 단위의 공간과 기능을 일원화해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2017년 10월 이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6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로부터 10억 6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지난해 10월 1일 열린 삼육대학교 직무박람회 ‘잡 페스티벌’ /삼육대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삼육대는 대학일자리본부를 중심으로 진로 및 취·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취업 전략, 직업교육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취업을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용수 기자

## 폴리텍대 36개 캠퍼스 내달 16일로 개강 연기

전국에 여러 캠퍼스를 둔 한국폴리텍 대학이 올해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한다.

26일 한국폴리텍대에 따르면, 전국 36개 캠퍼스의 개강일은 당초 3월2일에서 16일로 2주간 연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는 대구·경북지역 캠퍼스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강 연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 김명자 학사부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하계·동계방학을 조정해 수업 시간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